

투데이 칼럼

재난 예방에 도민 모두 관심 필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고 며칠 후면 동면하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초목의 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경칩(驚蟄)이 다가온다.

이맘때면 꽃샘추위라 하여 매서운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경기전 경내 매화와 '영원한 행복 슬픈 추억'의 꽃밭을 가진 봄의 전령사 福壽草가 노오란 꽃말을 터뜨려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아쉽게도 이번 겨울은 우리 전북에 유독 많은 피해를 안겨왔다. 김제와 고창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사육중인 돼지 1만여 마리가 처분되어 재산상 피해와 육안 속에서 감염염전과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 유관기관, 공무원이 합심하여 고생한 결과 조기 종식이 되었지만 많은 유품의 많은 피해와 휴유증을 남겼다. 또한 한파와 기습폭설로 고창군 등 10개 시군에서 추사 24건, 비닐하우스 붕괴.037건과 과수, 농작물 등 총 1,103건에 64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시설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예방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견디기 힘들었던 한파와 폭설이

내리는 겨울이 가고 새 울고 꽃 피는 봄이 온다고 포은 정몽주는 봄의 흥취에서 春雨潤不潤 夜中微有聲 雪盡春寒漲 草芽多少生(봄비가 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 깊어 희미하게 빗소리 들려라 는 다 녹아 남쪽 개울에 물 불어날 것이니 풀 싹은 얼마나 돋았을까)처럼 낭만의 계절만이 되는 건 아니고 봄에도 위험과 재난이 심심찮게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라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빙기에는 '쌓이나 건물 틈새에 스며들었던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고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져 틈새를 크게 만들어 남은 담이 무너지고 공사장이 붕괴하고 절개지에서 낙석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정기적인 정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는 점차 줄어



임선정 전북도 사회재난과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75일간 실시하고 있다. 진단대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교통 운송수단 등 전 분야 2만여 개소를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공, 민간시설 등 안전관리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지하 등 하드웨어 부분과 범규 미미,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일체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 등 특수 재난사고로부터 선제적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등을 위한 합동점검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며, 유사시 재난발생에 대비 민간기업 소유 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민간 실제 자원 응원 및 시스템 훈련을 강화하여 자원동원 및 공동활동 응원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안전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속에서 사라진다.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대처하여 百福無災 千祥集하고 모두가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길 빌어 본다.(구백)

독자제언

난폭운전 처벌 대폭 강화

지난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1.신호·지시위반 2.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5. 안전거기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위반 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이며 위 유형 중에서 물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거대한 흉기가 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로서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안전운전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백인호남원서 이백파출소장 경위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어린이·장애인 등 약자 인권보호 마땅

인권을 글자 그대로 풀어쓰면 인간의 권리라는 뜻이다. 실상 인권을 정의하는 일은 항상 그리 간단할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나 '권리'라는 개념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늘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던 몇 년 전만해도 부부싸움 신고 출동을 나가보면 "집안일이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웬 간섭이냐"며 도리어 경찰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니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에서 '자식'은 과연 인간으로 존엄성을 인정받지는 인권의 주체였을까? 아이에 대한 처벌을 혼유의 일종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보호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 2014년 이른 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을 회상해보면 그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들은 과연 그 신안군 어느 섬에 살며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즉 사회전반의 인식이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장애인을 무언가 부족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불쌍한 존재로만 생각한다. '염전주들'이 아닌 저런 사람들을 누가 거부 먹이겠느냐던 염전마을 사람들의 인터뷰는 우리사회의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송준규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

사설

KTX 전라선 증편 요구 관철돼야

고속철도가 개통된지도 이제 오래 되었다. 고속철도가 전북 발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인지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도민들이 속앰이를 하면서 충청도에 양보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난다. 지금의 현실은 철도 이용객이 늘었다 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기대했던 것 중의 하나는 관광 분야의 활성화였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도민들이 보기에 당연한 대응이었다. 전북도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관광 전략이 나오리라는 짐작을 그때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KTX 전라선이 증편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관심의 대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KTX 전라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9091명으로 전년동일 2014년도와 비교해 47%나 늘었다. 그리고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60%가 늘어 하루 평균 1만명을 훨씬 웃돌거라는 전망이

다. 그런데 증편 계획을 철도 당국에서 세우지 않고 있다니 별 스텝다. KTX 증편은 시대의 요구인데 말이다. 전라선에서 전주가 맡고 있는 역할은 크다. 전라선을 경유하는 도시들 중에서 전주가 가장 크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전주 한옥마을 관광은 그 활기가 나날이 광복할 만하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985만 명이었으므로 올해는 1000만명을 넘기려는 기대이다. 그리고 전라선 KTX 증편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순천의 순천만 국가정원도 그 관광객수가 5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수 엑스포 관광단지에는 무려 13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는 KTX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전주 한옥마을이 보여준 관광 성과를 더욱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즘이다.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전주 한옥마을의 명성은 이제 전국적이다. 전북도는 KTX 측에 도민의 뜻을 말해야 한다. 올해 8월에 개통될 수서발 KTX의 전라선 증편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 마땅하다.

중소기업의 형편 살펴야

도내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겠다. 이같은 말은 이번엔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있다. 지역 경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 중소기업들 속에서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국내 경제 분야의 최고 원로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2016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밝히고 있는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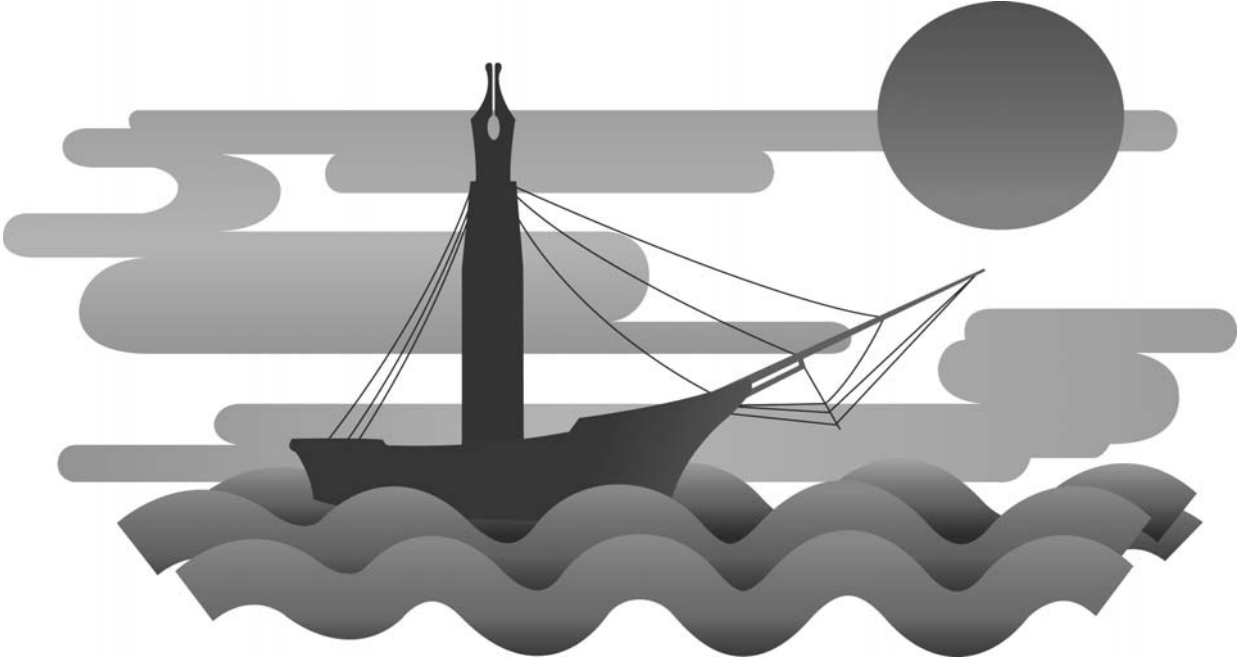
전북도는 파악하고 힘들수록 중소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현재 일자리도 없고 돈도 돌지 않고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지역 경제가 이처럼 경직된 것에 대해서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현재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기를 싸늘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법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문제이다. 중소기업들에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도내에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들이 전북 경제에 차지

하는 몫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치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들 속에서 오래도록 밝은 소식이 없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중소기업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이제 실속이 없는덕담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을 고무시킬 수가 없다. 전북도는 중소기업들과 관련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해야 한다.

도내의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접포들이 함께 사울에 두 개 꼴로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는 망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그러한 지 알아볼 일이다. 도내에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오래된 고민거리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일차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라이브인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